

## 국보관

### 감실 내 목조미륵보살반가상(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 마이트레야)

#### 중요문화재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상은 미륵보살의 상입니다.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미륵은 석가모니의 후계자로서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나타나 다음 부처가 된다고 여겨지는 존재입니다. 이 상에서는 호화로운 옷을 입은 ‘부처가 될 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왼쪽 다리를 연화좌에서 아무렇게나 내려놓은 반가부좌 자세로 고요하게 명상을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미륵이 아직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상태가 아니라,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현세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두려움을 없애 준다는 의미의 시무외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에서 무릎 위에 올려 둔 모습으로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여원인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만들어진 이 목조상은 빛나는 황금색 광배를 등지고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옷과 장신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목에 늘어뜨린 것은 수레바퀴 모양의 범륜으로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이 상은 감실에 담겨져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 빛이나 벌레 등 여러 손상의 원인으로부터 지켜진 덕분에 보존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감실 내부는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천상의 악사인 비천이 내려와 상의 머리 부분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문에는 법상종 고승의 초상과 문수보살, 유마거사, 그리고 사천왕에 속하는 부동명왕과 대륜명왕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